

오피니언

월/요/광/장

윤병갑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SWEET Fair 2012'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10개국에서 190개사가 참여하였는데, 작년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남부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재정 위기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차드 E 스톨리와 같은 전문가들은 향후 50년 내에 인류가 직면할 첫 번째 도전으로 에너지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겉보기에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증진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화석에너지를 다량 보유한 국가들이 휘두르는 자원 민족주의적 영향력과 그에 맞서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여려는 세력간의 이해 상충은 단순한 시장경쟁을 넘어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 개념의 에너지원 의존도가 극히 적은 나

라에서는 한편으로 기기의 효율 향상과 소비자 행태 개선을 통한 절약이, 다른 한편으로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산업화가 긴급하고도 중요하다. 과거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이러한 전략적 과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에는 헌신적이고도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호남의 미래 좌우할 신재생에너지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SWEET Fair 2012 행사장에서 만난 한 국내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호남이 바로 그러한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난 산업화시대에 개발의 열기가 빛겨간 우리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시대에는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 생각은 낭만적 낙관주의자의 몽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동의 한다. 이유는 아날로

그 시대를 건너뛰고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던 중국은, 이제 화석에너지 시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 재생에너지시대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지역에 대한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말이 있다. 기업경영에서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이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 토착화 경영전략을 뜻하는 말이다. 맥도널드가 인도에서는 최고가나 패ذ고기를 뺀 햄버거를 팔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녀 좌석을 구분하는 마케팅 전략을 쓴 것이 그

예를 들 수 있다. 수년간 세계화의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한국 땅에는 지방화의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지방의 것은 낙후된 시골의 것이라 치부되던 조류가 지나고 도리어 지방 특색이 살아 있는 토속음식과 문화, 사투리마저 아름다운 것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토속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는 호남이 새로운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교육 분야의 새로운 조류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종기술(異種技術)간 융합, 인문학과 과학이 서로를 끌어들이는 통섭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바로 그러한 이종기술의 융복합과 학문간 통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성과도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며, 진락은 융복합과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어떻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의 위기와 고위도로 대표되는 자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피크오일연구협회 조사에 따르면 인류는 땅속에 매장된 석유 중 3분2을 이미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계에 의하면 국내 에너지 공급은 석유, 석탄 등 1차 에너지가 대부분이고 신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0년 말 기준 2.61%로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SWEET Fair2012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이를 계기로 더 한층 국가전략 실행의 선도에 서서 지역의 모든 산관학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 호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박재순

근대적 의미의 최초 박람회(EXPO)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수정공 박람회이다. '증기기관'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박람회에는 증기 기관차가 선보였다. 이후 내연기관차, 전기 기관차 등이 나타났고 현재는 지하철, 고속열차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1900년 파리 박람회 주제는 '한 세기의 평가'였다. 1962년 시애틀 박람회는 '우주시대의 인류', 1975년 오키나와 박람회는 '우리가 보고 싶은 바다'가 주제였다. 그리고 2년 전 열린 상하이 박람회 주제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이었다.

박람회는 세계가 모이고 세계를 담아내는 지구촌의 축제이기도 하다. 세계가 겪었던 변화와 발전상을 보여준다. 박람회를 계기로 지구촌은 커다란 메가트렌드의 전환을 경험하며 거스를 수 없는 문명과 문화의 발전단계

해양수도 도약 위한 안목과 역량 키워야

거쳐 왔다.

박람회 개최될 때마다 내세우는 주제를 통해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박람회란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일반대중의 계몽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람회의 본질은 보여주고 보는 것이다. 자기 나라의 과학과 문명, 문화를 보여주고 다른 나라의 과학과 문명, 문화를 보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20년 전, 대전박람회 주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리고 대전은 우리나라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여수 박람회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위한 전진이어야 하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박람회 주제를 보면 여수의 미래가 보인다.

여수박람회는 필자와의 개인적 인연도 매우 깊다. 전남도청 수산개발국장으로서 재직하던 1996년 9월에 처음으로 기획했다. 바다와 섬이 많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낙후된 전남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0 세계박람회 전남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해 1999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어 필자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5월 BIE(세계박람회 사무국)에 개최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여수와 중국(상하이)을 비롯한 5개국 유치를 신청한 상태였다. 2002년 12월 3일 파리에서 4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상하이에 밀려 유치가 실패함으로써 유치총괄 기획자로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떠오른다. 한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한 결과, 역사적인 여수박람회 성공적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참으로 벅찬 감회를 숨

기고



이범욱

"물은 푸른 것을 낳는다. 푸른 것은 생명이다. 고로 생명의 어머니 물이다."

얼마 전 우리 고장을 찾아 강길 문화답사를 했던 소설가 김주영씨가 했던 말이다. 한평생은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고막천, 한평생이 흐르는 곳으로 나비축제, 국향축제가 열리는 생태축제의 고장이다.

1960년대 고깃배가 들던 고막천 상류에는 정유재판 때 전사한 남편을 따라 칠산 앞바다에 몸을 던진 8인의 열부(烈婦)를

기린 '팔영부정각'이 있다. 한평생 공평면에는 독립운동가 김철선생을 기리는 '일강기념관'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김철선생은 일제시대 때 천석꾼이던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사용하고, 소작인들에게도 배분해준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아름다운 생태와 의로운 역사가 숨 쉬는 한평의 봄은 전국에서 방문하는 나비축제 손님맞이의 분주함으로 시작된다.

한평 나비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축제이다. 지난 27일부터 12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의 주인공 나비는 한평군민의 기상을 닮은 '남방 제비나비'

로 지정됐다. 해안을 따라 서식하는 '남방 제비나비'는 날개의 힘이 세서 강한 바람에도 잘 날고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행사에는 또 한가지의 볼거리가 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던 영산강 하천정비 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천변 저류지(貯溜池)가 그것이다. 영산강살리기 사업 구간 중 처음으로 완공된 한평 2지구 제방을 사이에 두고 한평 나비축제가 열리는 엑스포 공원과 맞닿아 있다.

8km에 달하는 제방을 정비해 옛 물길을 다시 살렸고, 홍수에 대비해 축구장 4개 넓이의 천변 저류지가 조성됐다. 천변 저

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5월 12일부터 93일간 개최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보존과 이를 활용한 인류의 미래지향적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수는 바다의 도시이다. 바다를 뺄고는 여수를 말할 수 없다. 수산과 항만의 도시답게 풍부한 어장과 수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어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양식업이 발달했다. 365개의 섬 하나하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등 두 개의 해상국립공원을 끼고 있다. 관광산업도 발달했다. 이른바 해양수도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박람회 이후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여수가 해양수도, 그리고 해양 국제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람회를 통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류지에는 식물 관찰원과 산책로가 조성돼 나비축제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변에는 어도(魚道)와 어육이 조성되어 지역민과 탐방객이 즐길 수 있는 생태친화적 공간이 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사실 사업 초기에 여러 우려가 없지 않았다. '대운하 사업의 다른 말은 아닐까,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홍수조절 능력이 강화됐고, 수량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수질개선과 아름다운 생태환경 복원으로 이어져 지역을 찾는 축제 손님들에게도 한층 더 아름답고 편안한 강길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한평의 강길에서는 초록빛 들과 푸른 강을 양편에 두고 달리는 나비처럼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건강한 이들을 사시사찰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수자원공사 한평수도관리단장)

다. 이 미생물은 한국산 김치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김치에서 이 미생물이 발견되면 중국산 김치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과학 국가이자 전자정보통신 강국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이용해 중국산 김치에서만 검출되는 이 특이 미생물을 추출해 내는 기술을 바탕으로 그 기술을 활용할 장비 개발할 것을 서둘렀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알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시설

영광원전 핵심시설에 짝퉁 부품이라니

짚은 고장으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납품비리가 상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들은 업체로부터 중요부품을, 그것도 일부는 '짝퉁'으로 납품받으면서 수천만~1억 원까지 뇌물을 받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울산지검은 영광원전 근무 당시 한 업체로부터 16억 원의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정모(49)씨를 최근 구속했다. 이 부품은 국내 모 업체가 지난 2009년 고리원전 허모(55)씨로부터 프랑스제 '밀봉 유닛'을 넘겨받아 복제해 만든 '짝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아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문제의 부품은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는 중성자 검출기 밀봉장치로 원자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장비다. 원전 부품은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품을 써야 하는데도 뒷돈을 받고 짝퉁을 납품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짝퉁 부품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측의 해명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원전의 납품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한 업체로부터 각종 시험 장치 등을 납품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금액을 받은 이모(44) 과장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여러 업체와 원전 직원들이 납품비리와 관련이 돼 있고, 원전의 다른 부품에도 복제품이 사용됐을 수 있음이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원전 음모가 부정하게 납품된 저질 부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원전은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왔다. 교체 부품의 전수조사와 함께 관리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이유다.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공직자 '뇌물=독약'이라는 인식 심어야

공직사회 전반에 뇌물을 받고 공사 및 인사 청탁 등의 특혜를 건네는 '뒷거래'가 뿌리깊게 내재하고 있다. 공정거래 집행과 할 원칙이 청탁과 특혜 속에 허물어지면서 결국 지역 전체에 그 생채기가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에서 공무원, 경찰, 대학교수,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은 물론 도교육감에 이르기까지 '권한'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검은 돈'이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수십 명이 연루된 보혜저 축은행 및 광주시 총인사감시실 비리사건부터 곡성군 비서실장 뇌물수수사건, 전남도교육감 뇌물수수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비리는 직급이나 분야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더 악성으로 진화되고 있다.

비리사건은 대부분 뇌물을 건넨 직책 증거가 없는 탓에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장부 등의 압수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드러

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비리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사법 및 공사 발주, 승진·이동 인사 등이 불투명하다는 반증이다.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이로운 조건 제시, 수의계약에 의한 '조끼기' 발주 등은 물론 인사위원회보다 지방자치단체장, 기관장 등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면서 '검은 돈'이 거래되는 것이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엄격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며 주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뇌물이 독약이라는 인식부터 심어야 한다는 얘기가, 또한 사법 및 공사 발주, 인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오히려 내성만 키울 뿐이다. 해당 기관에선 비리 공무원을 감싸고 돌린 조직 기강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탕평정책과 민생정치로 조선의 중흥기를 이끈 영조는 정성왕후가 죽자 3년상을 마친 뒤 1759년 정순왕후 김씨를 계비(繼妃)로 맞이한다. 당시 왕실의 결혼은 국가의 최고 경사로 가례(嘉禮)라 일컬었다. 검약·절제로 일관했던 영조지만 혼례식은 기품 있는 축제로 치러졌다. 영조가 정순왕후를 데리고 궁으로 가는 길엔 379필의 말과 1299명의 신료들이 수행했다.

계혁군주 정조는 1795년 2월 어머니 혜경궁홍씨와 함께 아버지의 묘가 있는 화성으로 대규모 '능행(陵幸)'에 나선다. 공식 수행군 5000명, 총 비용 10만냥이 들어간 이 행차의 공식적 명분은 혜경궁홍씨 회갑축하연이었지만, 속내는 화성 건설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정치개혁 프로젝트였다.

이 두 가지 역사의 장면을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의궤(儀軌) 덕분에다. 영조의 혼례식은 '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에, 정조의 화성능행은 '원행유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글과 그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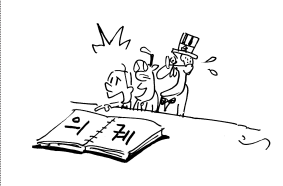
남아 있다. 화려한 색채와 세밀한 묘사는 마치 당시 행렬을 눈앞에서 보는 듯하다. 기록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의궤는 왕실의 의식이나 외국 사신의 영접 등 국가의 주요 행사를 그대로 기록해 후대 사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편찬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조선왕조에서만 만들 어졌으며 기록문화의 꽃으로 꼽힌다.

조선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를 망라한 조선왕조실록 역시 독창적인 기록문화의 전통을 보여준다. 의궤와 실록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만큼 가치가 높다. 이처럼 찬란한 기록문화는 어렵게도 일제와 독재정권으로 인해 단절되고 말았다.

약탈편지 145년만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교장관 의궤가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개월간(4월24일~6월24일) 전시되고 있다.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조선들의 지혜와 철학이 기록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정추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기록문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樂	
편집국장 曹慶完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3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